



조재진 ▶



47년 만에 아시안컵축구 우승을 선언한 베어벡호가 8강 진출의 고비가 될 바레인전에 '올인'을 선언했다.

필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5일(한국시간) 밤 9시35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글로라 봉카르노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0위 바레인과 2007 아시안컵 본선 조별리그 D조 2차전을 치른다.

FIFA랭킹 51위인 한국은 바레인에 무려 49계단 차로 앞서고 있고 역대 전적에서도 9승3무1패로 일방적인 우세에 있다.

■ 베어벡호 내일 밤 9시35분 바레인전

조재진 첫승 축포 울려라

원톱 출전...선제골 기대

염기훈·최성국 '좌우 날개'

이에 따라 1차전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와 1-1 무승부를 거둔 필 베어벡 감독은 8강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해 바레인을 반드시 첫 승 제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1차전을 마친 베어벡 감독은 최전방 원톱 요원으로 나섰던 조재진(시미즈)의 플레이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던 만큼 바레인전에도 조재진에게 선발출전의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전에서 9분만 출전해 아쉬움을 남겼던 '중동킬러' 이동국(미들즈브러)도 최상의 몸 상태를 갖추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출격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베어벡 감독으로부터 '중원사령탑' 임무를 맡은 김정우(나고야)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우디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염기훈(전북)-최성국(성남) 듀오가 좌우측면에 배치될 전망이다.

편도선원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천수의 경우 선발출전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베어벡 감독의 '깜작 조커'로 언제라도 최전방을 휘저을 준비가 돼 있다.

공수 조율의 핵심인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김상식(성남)이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더블 볼란테'의 파

트너로 사우디전에서 발목을 채인 손대호(성남) 대신 징계가 풀린 이호(제니트)의 출전 가능성도 있다. 바레인전 대승이 필요한 만큼 포백(4-back)의 좌우 윙백에는 사우디전에서 활발한 공격가담으로 좋은 평가를 얻은 김치우(전남)-오병석(포항)조가 또 한번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비력과 국제무대 경험에서 앞서는 김동진(제니트)-송종국(수원)의 출격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수비는 김진규-강민수(이상 전남)가 나서는 가운데 주장 이운재(수원)가 골키퍼 장갑을 낀 전망이다.

한편 바레인은 2004년 아시안컵에서 득점왕 출신 알리 후바일과 나이지리아 귀화후방 제이시 존 아크와니 투톱의 공격력이 매섭다.

특히 오른쪽 윙백을 맡고 있는 모하메드 후바일은 공격수 알리 후바일의 친형으로 뛰어난 오프라잉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가담에 이은 크로스가 좋아 요주의 선수중 하나다. 하지만 바레인은 전반적을 공수전환 속도가 느리고 좌우 측면 뒷공간이 자주 열리는 약점을 가진 만큼 빠른 역습과 공강점투 패스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대표팀의 분석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오하이오 내 텃밭”

박세리 8언더 '1R 최저타'...단독 선두

역대 4회 우승·LPGA 코닝클래식

한국여자프로골프의 맏언니 박세리(30·CJ)가 텃밭인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다시 힘을 냈다.

박세리는 13일(한국시간) 오하이오주 실베니아 하일랜드 메도우스골프장(파71·6천428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 첫날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9개를 끌어당겨 8언더파 63타를 몰아쳤다.

무명의 엘레나 샤프(캐나다·6언더파 65타)를 2타차 2위로 밀어낸 단독 선두이자 23년 역사를 가진 이 대회 1라운드 최저타 기록이였다.

이 대회에서 네차례나 우승컵을 가져갔던 박세리가 올해도 우승한다면 미키 라이트(미국)가 1957년부터 1963년까지 시아일랜드 오픈에서 세웠던 한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인 5승과 타이틀을 이르게 된다.

또한 이미 LPGA 명예의 전당에 오른 박세리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명예의 전당 가입 조

건인 100포인트를 채워 2004년 구옥희(51)에 이어 두번째로 국내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작년 켈리파잉스쿨에서 조건부 출전권을 따냈지만 허리 부상으로 고생했던 박진영(21)은 4언더파 67타를 치며 3위에 올라 돌풍을 예고했고 작년 대회 우승자 김미현(30·KTF)도 3언더파 68타로 조아람(22), 모건 프레셀, 캐리 우드(이상 미국)과 함께 공동 4위에 포진했다.

장정(27·기업은행)과 재미교포 김초롱(23·미국이름 크리스티나 김)도 2언더파 69타를 때려내며 공동 8위에 올랐고 US여자 오픈 챔피언 크리스티 커(미국)도 같은 타수를 치며 선두권을 추격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박세리가 13일 미 오하이오주 실베니아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 1라운드 첫 패어웨이에서 아이언샷을 때린 뒤 공의 궤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나상욱 3언더 21위

PGA 존 디어클래식 1R

나상욱(23·코브라골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존 디어클래식 첫날 중위권에 자리를 잡았다.

나상욱은 13일(이하 한국시간) 일리노이주 실비스의 디어런 TPC(파71·7천257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쳤다.

7언더파 64타를 치며 선두로 나선 닐 랭카스터(미국)에 4타 뒤졌지만 상위권에서 혼전이 벌어져 순위는 공동 21위였다.

나상욱은 그린 적중률 83%를 기록한 아

이언샷이 돋보였지만 퍼트수가 30개로 다소 많았던 점이 아쉬웠다.

하지만 상위 랭커들이 19일 개막될 브리티시오픈을 준비하느라 대거 영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나상욱이 남은 라운드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발판은 마련한 셈이다.

디어런 TPC가 마을에 등대며 미국에 남은 마스터스 챔피언 잭 존슨(미국)은 1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56위에 그쳤고 작년 대회 우승자 존 샌든(호주)은 7오버파 78타라는 끔찍한 스코어를 적어내며 154위까지 밀려 첫 통과를 걱정하게 됐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도 2오버파 73타, 공동 117위로 떨어져 역시 출발이 좋지 않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남녀양궁 올림픽 출전권 확보

한국 남녀 공사들이 내년 베이징올림픽 출전권 '사냥'에 성공했다.

한국은 12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라이프치히 페스트비제양궁장에서 벌어진 제44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7~15일) 6일째 남녀 개인전에서 박성현(24·전북도청)과 임동현(21·한국체대)이 4강에 진출하는 등 남녀 6명 모두 16강 진출에 성공하며 14일 단체전 결과에 관계없이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다.

국제양궁연맹(FITA) 규정에 따르면 세계선수권 단체전 8강 진출국에 올림픽 출전권을 24장 나눠주고 나머지 선수 가운데 개인전 상위 16명에게 출전권을 한 장씩 주는 만큼 개인전 16강에 남녀 3명씩 진출한 국가는 올림픽 개인·단체전 티켓을 자동 확보하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이승엽 부진 원인?

원손 엄지 관절염 때문

2군행을 자청한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원손 엄지 관절염(사진 원내)으로 시즌 내내 고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초치', '산케이스포츠' 등은 13일 인터넷판에서 이승엽이 전날 도쿄 시내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고 원손 엄지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승엽이 지바 롯데 시절부터 원손 엄지 통증으로 고생해왔는데 올해 개막전부터 다시 도졌고 타격할 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반적인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슬럼프의 원인으로 왼쪽 어깨, 왼쪽 무릎 등이 지적됐으나 방망이를 잡는 원손 엄지가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으로 관평난 셈이다.

이승엽은 시즌 초에는 엄지는 물론 왼쪽 손바닥 떨림 현상을 겪기도 해 힘있는 스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저 맞는 데만 집중, 타율 0.254를 때리고 15홈런, 42타점을 올리는 데 머무른 것이다.

이승엽과 하라 다쓰노리 감독은 이승엽이 2군에 있는 동안 엄지 통증을 가라 앉혀 24일부터 시작되는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후반기 개막전부터 출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3개월 이상 괴롭혀 온 부상이 열흘 사이 치유될 지는 불투명하다.



이승엽은 14일 가와사키 자이언츠 구장에서 훈련을 시작하고 올스타전 2차전이 열리는 21일께 1군에 돌아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홈런 타깃’ 먼저 맞으면 5천만원 상금

프로야구 올스타전 행사 다채

오는 17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07 삼성PAVV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거포'들의 홈런 경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올스타전에서 사직구장에 '슬러거 홈런 타깃'을 설치해 5천만원을 주는 등 푸짐한 시상 계획을 발표했다.

KBO는 ㈜네오위즈게임즈와 제휴해 외야 전광판 왼쪽 하단에 가로, 세로 5m의 정사

각형의 목표물을 설치한 뒤 가장 먼저 맞힌 타자에게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경기 도중 홈런을 친 모든 선수는 1개 당 30만원을 받고 외야 펜스의 '삼성 PAVV 홈런존'으로 타구를 넘긴 타자는 40인치 PDP TV를 타다.

화끈한 홈런 타자들에게 큰 선물을 준비한 이번 올스타전에서 이대호(롯데), 김태균(한화), 김동주(두산) 등 강팀 간판타자 가운데 누가 행운을 차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4일(토)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대학부 결승(14:00·KBSN Sports)
 ▲프로야구<삼성-현대>(16:30·KBSN Sports), <LG-KIA>(17:00·MBC ESPN)
 ▲피스컵 축구<성남-라싱산탄데르>(20:30·MBC ESPN)
 ▲아시안컵<사우디-인도네시아>(21:25·SBS스포츠·Xports)

25·SBS스포츠·Xports)
 15일(일)
 ▲U-20 세계청소년월드컵 8강전(03:05·SBS스포츠·MBC)
 ▲메이저리그<워싱턴-플로리다>(07:55·Xports)
 ▲프로야구<삼성-현대>(16:30·KBSN Sports), <한화-롯데>(16:50·SBS스포츠), <LG-KIA>(17:00·MBC ESPN)
 ▲아시안컵<중국-이란>(19:10·Xports), <바레인-한국>(21:00·SBS스포츠·21:25·MBC·Xports)